

사회

더 무서워진 세상

흥기 강력범 16%, 마약사범 13% 늘어 범죄 흉포화

불경기 탓 경제사범도 전년보다 21%나 급증

불경기가 고착화하면서 흥기를 사용한 강력범죄와 마약범죄는 물론 사기·횡령 등의 경제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증가하고 있다.

갑수목 범죄 수법이 잔인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한 실정이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흥기를 사용한 강력사범(폭력·강도·살인 등)이 광주·전남에서 지난해까지 5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9명)에 비해 74명(16.1%), 강력사건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 역시 179명으로 21명(13.3%)이 각각 더 늘었다.

지역 불경기를 반영하듯 경제사범도 지난해까지 294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436명에 비해 21.1%나 뛰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뺑소니' 사건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2816건이 접수돼 지난해 2455건보다 늘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세태를 반영하듯 단순 폭행은 줄어들고 대신 흥기를 사용한 잔혹한 범죄와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 등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 범죄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력범죄와 경제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범죄 피해자'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

에서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금액이 지난 2005년 5000만원에서 5년만인 지난해 3억675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차례 관련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흉악범, 뺑소니 사건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광주지검 이은강(41) 검사는 "특정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문지마 범죄'를 비롯한 흉악범과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경제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연말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자금 1억15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범죄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덕불감 대학 교수들

인건비·매출전표 허위 작성 수천만원 꿀꺽 교수 2명 기소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는 23일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허위청구해 연구비 7800만원을 편취한 조선대 김모(56) 교수와 기자재 납품업자와 공모, 기자재 구입대금을 허위청구해 연구비 4800만원을 편취한 목포대 김모(45) 교수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

하면서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시간강사 등 10명의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7800만원을 가로챘다.

목포대 김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학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자와 공모해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48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생이나 시간강사,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학교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교수들은 "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연구에 실제로 참여했으며 연구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 동생 돈 착취 도박한 못된 형

인권위 '가족에 의한 차별' 첫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동생의 월급 수천만원을 착취한 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A씨의 셋째 형은 "2009년부터 A와 함께 산 넷째 형제가 A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예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적금까지 찾아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청각·언어 장애 2급으로 특

수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를 표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 19년째 해남의 한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09년 3월 당시 A씨의 통장에는 월급과 사촌이 보낸 돈 등 8500만원이 있었지만 지난 3월 말 잔액은 4만8000원이었다.

A씨의 넷째 형은 용돈으로 매년 35

만원, 결혼 자금으로 150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6000만원이 넘는 형이 A씨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A씨의 돈 6000만원과 통장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거 가족 간의 횡령되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씨의 형은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인권위법에 근거해 A씨의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탕탕탕" 실탄 날아와도 줄행랑

경찰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범을 실탄까지 쏘며 추격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밤 11시15분께 광주 서서구 쌍촌동 신학대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60호XXXX호 검은색 그랜저XG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박모(40) 경위와 이모(34) 순경은 운전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그랜저 승용차는 뒤로 3m가량 후진한 뒤 그대로 유턴해 도주했다.

박 경위와 이 순경은 곧바로 도

40대 운전자 쌍촌동서 순찰차 들이받고 뺑소니

권총 쏘며 추격불구 도주

주차를 뒤쫓기 시작했고, 이날 밤 11시18분께 이 같은 사실을 상황실에 알렸다.

또 광덕고 사거리를 지나 광주 서 제2청사, 한국병원으로 도주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발포경고도 했다.

박 경위는 도주차량이 죽림마을로 향하자 공포탄 1발을 쏘았지만 계속 질주하자 오른쪽 뒷바

퀴를 향해 실탄 3발을 발포했다. 하지만, 도주차량은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밤 11시29분께 순천방향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은 도주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심모(42)씨가 당시 운전자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심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심씨가 운전면허도 있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으면 위드마크작용이 힘들어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개그맨 최효종 처벌될지 관심

강용석 의원 고소,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경제팀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의 지휘에 따라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관련자 소환 등 일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최효종이 KBS 2TV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 출연해 국회의원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을 받아 여당 뒷밭에서 출마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도서관 의류 절도범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23일 도서관에서 의류를 훔친 김모(여·21)씨를 절도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손모(여·24)씨의 책상위에 놓인 35만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는 등 4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다. 김대성기자 bigkim@

나원침 (8445) 김종두



회정주공 조합장 구속 영장 기각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이 청구한 회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정모(55)씨와 정비사업체 D사 간부 이모(6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광주일보 11월23일 6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대한 법적 다룸의 소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경찰 울려 놓고 쳐다보다 폭행

도로에 떨어진 소지품을 줌을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고, 경적 소리를 듣고 쳐다보다며 주먹을 휘두른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서행했다. 연합뉴스

23일 광주서부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 조모(58)씨는 지난 22일 밤 9시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 앞에서 자신이 울린 경적소리를 듣고 쳐다본 손모(44)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에서 손씨는 "떨어진 이어폰을 줌다 택시 경적에 놀라서 쳐다봤는데 조씨가 갑자기 내려 주먹을 휘둘렀다"며 억울함을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폭설 대비 제설차량 시험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23일 제설장비 보관소에서 겨울 폭설에 대비해 다목적 제설차량을 시험하고 있다. 구는 제설용 열화칼슘 302t, 소금 343t, 모래주머니 1만개를 확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전력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